

책 제목: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과목: 환경과 인간 **분반:** 03

현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경제학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적 자본의 대부분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인 들은 과학, 기술 지식이나, 정교한 여러 가지 설비 자본 등을 생산을 도와주는 자본, 즉 인간이 스스로 자본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기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다. 또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보면, 평화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모든 사람들의 번영이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평화적일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부자는 전쟁을 도발할 이유가 없기에 평화의 길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부에 대한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세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돈이 사용되고 그 편익을 따지면서 '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용'은 '자유재' 라고 불리며 이는 신으로부터 개입된 환경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인데(완전한 인간 창출) 그렇기에 어느 행위에 의해 환경이 엉망이 되어도 경제적이라 판단할 수도 또는 반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비용을 사용하게 되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시장은 사회의 표면에 지니지 않고 순간적(단기적) 상태에 집중할 뿐이며 표면 안에 있는 자연과 사회적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시각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학적 가치관에 의해 얽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는 자연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은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의 향상은 환경적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기에 모든 사람들의 교육 정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술적 지식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목적의식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의 교육을 받고 지식이 늘어나지만 교육의 핵심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은 토지이다. 역사를 봐도 토지를 약탈하고 지배하는 민족이 그 주권을 쟁취하듯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고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의 기술과 공업화가 발달하기 이전 사회의 모습은 땅을 가꾸고 걷는 땅이 아닌 귀한 토지로 재산과 식량과 부의 원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와 소득만을 생각한 가치, 진로를 고르며 토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급격한 변화에 열광하거나 기술,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사실에 사로잡혀 토지와 그 위에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공업 자원을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인구의 6퍼센트에 지나지 않지만 공업 자원 사용률은 40퍼센트라고 한다. 공업 기술의 성장률에 비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 발전 성장 속도가 더디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지구상에 남아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세계 자원의 매장량 확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사용과 증가율을 전제로 한다면 대다수의 중요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은 100년 이내 굉장히 비싼 연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한다. 사실 제한적인 자원 아래 증가하는 사용량을 통한 비교 분석 연구는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듯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기술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 세계를 만든 틀은 형이상학이며 이것이 교육을 만들고 교육이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 온 형태를 지닌다. 기술을 통해 이 세계가 발전해왔지만 그런 이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기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인간이 만든 기술은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과는 매우 다르다. 자연계의 모든 것은 크기, 속도, 힘에 그 한계가 있고 균형과 조절의 힘이 작용한다. 외부의 조정 필요없이 스스로의 자정작용, 조절에 의해 그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술은 스스로 제어하는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의 무책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좋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 30년간 새로 짚어진 문제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된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가치관을 간디의 말을 빌리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생산이다”라는 사실이다.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심한 양극화를 가져왔기에 이를 더욱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대중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며 사용하고 폭력적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가치관이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가진다.

사회의 어느 부분이라도 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 가령 가치관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돈과의 관계는 형성될 것이고, 금전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도 결국엔 돈만 있으면 올바른 가치관 없이도 조화, 미, 건강, 환경적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농후하다고 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테러, 민족 말살, 사회질서 붕괴 등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그 문제는 결국 인간이 성장시키고 형성해온 기술과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과연 세상의 돈과 인간이 만든 기술력으로 다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해결하고 구하기 위한 단편적인 시야, 세상적인 안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알고 올바른 방향성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간 중심의 기술력으로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제목에 있는 “작은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명확히 어떠한 원리나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부에 대한 갈망, 공업 기술 발전의 타락한 목적성, 물질 만능 주의를 “큰 것”으로 본다면 그에 반하는 이 세상의 진리가 “작은 것”에 속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는 인간이 문제를 야기했고 해결을 해야 하는 주체도 인간인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형성되지 못한 인간 중심의 경제체계에서 벗어나 올바른 진리를 통한 경제 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는 작가의 견해, 그리고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학적 가치관의 문제, 시야를 배울 수 있었다.